

축산분야 최초로 1백만불 수출탑 수상

— 한국바이엘화학 동물약품 완제품으로 —



원 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업계에서 그것도 외형이 별로 크지 않은 동물약품업계에서 최초로 한국바이엘화학이 1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작년 11월 30일 제22회 수출의날 시상식에서 1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김길원사장은 「3백억불의 국내총 수출액중 미미한 액수이지만 동물약품으로는 한국최초로 수상을 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드린다」고 전제하고 영광을 2백여명의 바이엘화학 가족들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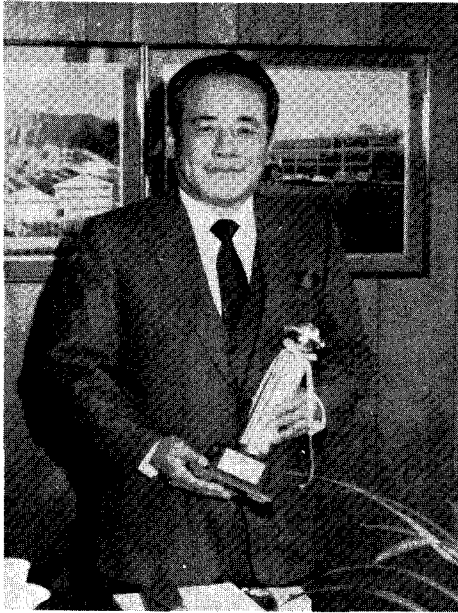
이땅에 축산업이 산업화되기 전인 지난 1965년 3명의 발기인에 의해 한국비타민 헤드쿼터스(주)로 출범해 당시 축산불모지의 우리나라여건에 우수한 동물약품을 생산해 한국축산발전에 기여하며 국내판매고가 케도에 오르면서 '69년부터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 눈을 돌려 당시 기천불의 수출고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은 계속 신장해 70년대초 20만불 수출이 가능했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수출고는 급성장하

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동남아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체코 등에도 수출시장을 넓혀 85년도에는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1백 15만불의 수출고를 올리게 되었다.

수출품목의 주종은 카토살, 아리살, 칼폰, 로이코마이신, 프로롱갈 등 주사제에서 그로빅 등 첨가제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제품에 달하고 있으며 '86년도부터는 백신수출도 할 예정으로 있다.

「성장의 비결은 양축가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최선의 설비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게 됐으며 국내축산업계는 물론 해외 축산업계로 수출에 큰 발전이 있었다. 특히 연간 2억5천만원 정도를 순수한 품질관리비용으로 투자하는 한편 부설기관으로 박사급 3명, 석사급 6명 등이 종사하는 동물의약연구소를 개설해 첨단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에 관한한은 관계자에게 확고한 권한을 부여해 생산과정에서부터 엄격히 관리하며 출하후 유통과정의 사후 품질관리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김길원사장은 강조한다.



△ 한국바이오텔화학 김길원 사장

이밖에도 동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 200~300회에 걸쳐 사양기술, 질병, 업계정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사보를 월2회 발행, 축산전공 대학생에게 장학금지급 등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더불어 양축가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총10억여원을 투자 경기도 안성시에 신공장을 세워 새로운 규모와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예방의학 차원에서 효율적인 질병방제를 위해 백신생산공장을 건립 현재 시험생산을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였다. 현재 백신수출을 위한 각국의 수출상담이 활발히진행중에 있다.

김길원사장은 「동물약품업계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받아 축산업발전과 약품업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기에 돌입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보호에 힘입어 새로운 기술개발과 투자가 계속되어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만일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으로만 남아 국제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잃는다면 더 큰문제가 발생

할수 있는만큼 앞으로 한반도가 아닌 세계로 응비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원료를 불가피하게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 현실에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 완제품을 수출한다면 외화획득은 물론 국내 축산업계의 국제적 지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가 세계각국에 300여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임을 이용해 판매조직망을 잘 활용한다면 전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장사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약품은 소비자반응(약효)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신용과 좋은 품질로 계속 수출신장은 가능할 것이다. 국내시장의 크기가 작고, 자금력 개발의 어려움이 있지만 개방사회로 점차 발전해 가면서 수출을 위해 수입을 불가피하게 해야하는 심각성에 비추어 국내 업계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이나 과거 좋았던 시절을 잊고 새로운 것을 부단히 창출해 나간다면 새로운 비전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길원사장은 「이번 1백만불수출탑수상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수년내로 3~4배의 수출증가를 목표로 전직원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동물약품을 통한 국내축산업의 진면목을 전세계에 널리알리고 착실한 기업의 성장으로 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국내 양축가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짐한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

그동안 국내축산업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선진외국의 기술을 도입해 많은 발전과 기술축적이 부단히 이루어져 이제까지 들여오는 축산에서 외국에 전수해주는 축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동물약품으로부터 전세계를 향해 우리의 축산업의 선진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 바이오텔화학에 감사하며 계속 발전해 동물약품 업계 뿐만아니라 다른 축산업계에도 파급되어 더욱 선진화되는 축산업계를 기대한다. <斗>